

오늘은 소설 『인간혁명』 연재완결 30주년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戸田城聖) 선생님 탄생일

2023년 2월 11일



“나의 존귀한 보우(寶友)에게 영광이 있으
라! 승리있으라!” - 격무 속, 한마디 한마
디에 혼을 담아 원고 집필에 임하는 이케
다 선생님. <1972년 11월, 도쿄 시나노마
치 구(舊) 세이쿄신문본사에서>

@seikyoonline.com

전기소설(傳記小說)은 보통 그 인물의 궤적을 그린다. 그러나 축적된 ‘사실(事實)’이 ‘진
실(眞實)’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광선유포(廣宣流布)의 대 스승인 도다조세이(戸田城聖)
선생님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불이(不二)의 제자인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선생님이
다. 은사의 탄생일인 오늘 11일, 소설 『인간혁명(人間革命)』 연재(連載) 완결 30주년을
맞았다.

사제개가(師弟凱歌)의 대서사시(大敘事詩)를 엮어라.

“도다(戸田)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 그 전기(傳記)를 쓰려면, 광선
유포의 싸움을 일으켜, 세계평화를 향한 부동(不動)의 초석(礎石)을 쌓아 올리지 않고서

는, 도다의 정신을 남김없이 전할 수는 없다.” - 이케다 선생님은 소설 『신·인간혁명(新·人間革命)』 제2권 ‘선구(先驅)’ 장(章)에 적었다.

소설 『인간혁명』의 집필이 발표된 것은 1964년 4월, 도다 선생님의 7주기 법요(法要)의 석상이었다.

1960년 5월 3일, 이케다 선생님은 제3대 회장 취임식에서 은사의 유언인 300만 세대(世帯) 달성을 7주기까지의 목표로 내걸었다.

2년 후인 1962년, 학회는 300만 세대를 돌파. 선생님은 제자로서의 승리의 증거를 가지고 『인간혁명』의 펜 투쟁을 개시한 것이다.

1965년 1월 1일, 법오공(法悟空)의 이름으로 연재가 스타트. “전쟁만큼, 잔혹한 것은 없다”라는 말로 시작해 도다 선생님이 도쿄(東京)·나카노(中野)의 도요타마형무소(豊多摩刑務所)를 출옥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도다 선생님이 묘오공(妙悟空)의 이름으로 집필하고 본지의 창간 이후 3년여에 걸쳐 연재된 『인간혁명』은 은사가 옥중(獄中)에서 지용보살(地涌菩薩)의 사명(使命)을 자각(自覺)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 흐름에는 이케다 선생님의 『인간혁명』이 은사의 『인간혁명』의 속편(續編)이자 창가 사제(師弟)의 진실을 적어 남기겠다는 의의가 담겨 있다.

‘후기(後記)’에 집필한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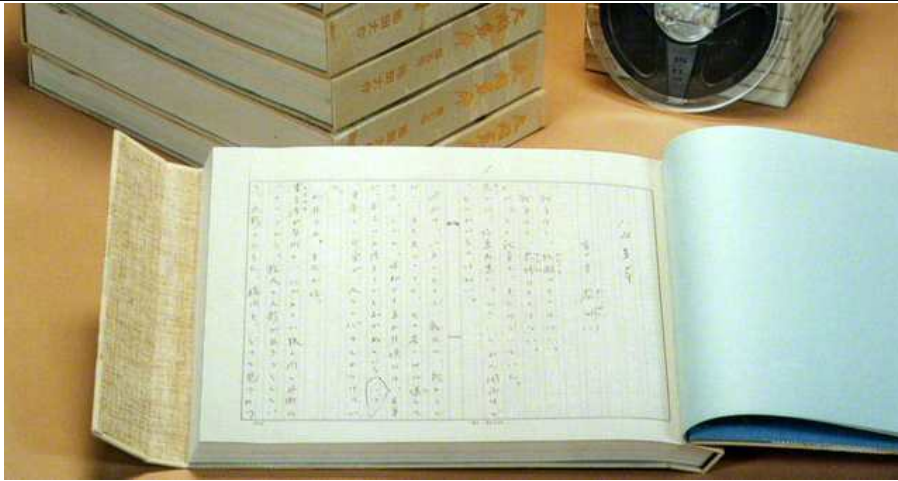
패전의 잿더미에 홀로 서서 사신홍법(死身弘法)의 격투를 거듭해 일본의 광선유포의 견고한 초석을 구축한 도다 선생님. 그 생애(生涯)가 활사(活寫, 생생하게 나타냄)된 연재는 전 동지의 가슴에 감동과 용기의 불길을 넓혀나갔다.

연재 개시 후, 28년이 경과한 1993년 2월 11일, 『인간혁명』은 1509회의 연재 만에 완결되었다.

도다 선생님의 생일인 이날, 이케다 선생님은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 임했다.

선생님은 사사(謝辭)에서 말했다.

“귀 대학에서 받은 존귀한 칭호를 저는 가장 큰 명예로 삼아 저의 은사(恩師)에게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어디까지나 스승을 선양하고 싶다는 제자의 적성(赤誠)이 자아낸 말이었다.



『인간혁명』의 원고를 엮은 책자와 이케다 선생님이 원고를 붙여넣은(구술한) 오픈릴테이프. 고열이 났을 때도 구술필기로 집필이 계속되었다. @seikyoonline.com

이어 이케다 선생님은 이날, 『인간혁명』의 ‘후기’를 엮어 집필한 마음을 적었다.

“(도다) 선생님의 생애는 그대로 한 인간의 위대한 인간혁명(人間革命)의 궤적(軌跡)이며, 그것을 써서 남김으로써 만인(萬人)에게 인간혁명(人間革命)의 길을 여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 확신했다.”

광포확대(廣布擴大)에 도전하면서 읽고, 읽으며 대화에 달린다. 그 연동(連動) 속에 『인간혁명』의 정신은 자신의 흉중(胸中)에 맥동(脈動)한다.

자, 싸우자! 자신의 사제개가(師弟凱歌)의 대서사시(大敘事詩)를 엮자!